

불자 세상보기



정경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문화적 호소가 갖는 파급력에 놀란 정치권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전과자 임직원 채용 제한, 성폭력 반복시 시설 폐쇄 등 수용자 인권보호 조항을 비롯하여 공익 이사회, 이사 및 시설장의 정년제 도입, 후원금 관리공개 의무화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까지 쟁점을 하고 나선 이유는 이번 인화학교 사건에 복지법인들의 낮은 인권의식과 보호 제도 미흡이 직접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적지 않은 복지시설법인들의 즉박경

불교복지법인들, '도가니법' 개정엔 동참을

영과 폐쇄적 운영풍토, 불투명한 회계관행과 부정, 미흡한 처벌 규정 등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당장 인화학교를 운영하던 복지법인 '우석'만 해도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설립자의 친인척들로 채워진 법인 이사회는 이를 방조했고, 예바다학교, 성암재단, 석암재단 등은 시설장이 처벌을 받은 뒤에도 아들이나 친인척이 시설을 물려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상당수 복지법인이 안고 있는 폐쇄적 운영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한다고 하니, 일부 종교법인들과 학자들의 반대의견이 술술 풍겨 나오고 있다. 국회의 개정 추진을 앞두고 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한 11월 15일의 토론회에서도 반대의견들이 주종을 이뤘다. 대체로 인권보호라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시행시 정부 규제가 과도하여 법인 설립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명분인데, 이진종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개입받기 싫으니 지금처럼 두라'는 것이다.

물론 종교사회복지협의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지는 않았고, 협의기구 수준이어서 단일한 입장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복지법인의 절반이상을 점유하는 종교복지법인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반대 정서를 표출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종교법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엔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때만 해도 성암재단, 석암재단, 성실요양원, 은혜사랑의집 등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비리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종교복지법인의 상당수를 점하는 보수 개신교계와 한나라당이 반대해 결국 법개정을 못하고 만 전례가 있다. 그 결과 복지법인에서 국고를 횡령하고도 환수를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법인설립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여지스럽다.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우지 않았다는 것은 참

으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설립자의 권한 침해라는 것도 해방이후 적산불하와 원조물자 배분 과정에서 온갖 지원과 특혜로 세워진 것이 국내 대부분의 복지시설인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 공익성이 있기에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마치 순수하게 자신들이 축적한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인식도 고약하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엔 불교복지법인들은 어정쩡하게 반대 여론에 몸을 걸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하여 분명하게 찬성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부처님이야말로 승단을 운영하면서 투명성과 대중공의(민주주의)를 가장 중시했던 분이다.

투명성과 대중공의의 보장이야말로 2600년 동안 불교가 면면히 이어져온 원동력이자 자랑스런 불교전통의 하나이다. 이러한 소중한 불교전통이 다른 일도 아닌 중생구제를 한다는 복지사업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대체 불교의 사회적 존재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불교복지법인들이 정치화된 일부 종교기득권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대 흐름에 흔쾌히 동참하길 바란다.

社說

조계종, 귀부터 바로 열러라

조계종의 일방적인 종무행정이 문제이다. 포교원이 진행 중인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으로 시작된 갈등은 잠잠해 질 줄 모르고 있다. 앞치대 덩치 격으로 종무원은 불교계 한 언론사의 비판 보도에 폭언 등 비상시적인 대응까지 보였다. 포교원 산하 단체의 내부 문제를 공론화한 한 자원봉사자를 중징계한 것 또한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좋은 '깜'이다.

단체 지원금을 빌미로 조계종 명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은 신행단체의 조계종 쫓겨나기에 다른 아니다. 종무행정을 비판한 교계 언론에 무조건적인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폭언한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재가자가 내부 고발식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삼보

비방 운운하며 활동정지 처분을 내린 것 또한 거대권력이 개인에게 휘두른 횡포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조계종 총무원 제33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해왔다. 총무원장 스님의 탁월한 정치력은 '계파 나눠먹기'라는 지적 속에서도 개성이 강한 교구본사와 계파 등 사분오열했던 종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고 있다.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실책은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이러서는 안된다. 많은 불자들은 알고 있다. 자성과 해신의 5대결사의 바탕에는 무엇보다 하심(下心)이 있어야 함을, 참회는 기 사회생의 기회를 준다. 조계종은 당장 닫힌 귀부터 열러라. 들으면 들을수록 열리는 것이 말문이다.

템플스테이 홍보 제대로 다시 해야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사찰과 불교문화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외국인 2000여 명이 뽑은 서울의 명소와 완소(완전 소중함) 체험 20가지를 쫓아 세 위보다도 한국불교와 관련된 것은 하나 없었다.

실로 충격적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불교를 뺄 수 없고, 템플스테이는 대표적인 관광사업이라고 말해 왔다.

불교의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간혹선 등을 들고 해외로 뛰쳐나가기 한 해 동안 정작 내 집 안방을 드나드는 손님맞이에는 소홀했다. 템플스테이를 한다며 사찰마다 요금표는 붙였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에 접하나 찌지 못하고, 그리움 하나 남겨두지 못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

해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만 해도 하루에도 수백 명의 외국인이 다녀가지만, 그들은 정작 조계사가 아닌 '인사동에서 전통물건 쇼핑하고 전통차 마시기' (8위)를 꼽았다. 천년고찰 봉은사도 마찬가지. 봉은사가 있는 삼성동에 찾는 외국인들은 '코엑스 전시와 아울러 움 돌러보기' (21위)를 선택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 주무기관은 제대로 진단하고 똑바로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정부 지원금이 줄었기 때문"이라거나 "서울에 사찰이 적어서"라는 낯뜨막한 대답은 하지 말자. 서울시의 설문조사 이번 결과 발표가 한국전통문화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템플스테이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유중우 동국대 불교대학생회장

조계종립 동국대는 불교계를 대표해 불교사상을 담은 사회 동량을 키워내는 산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발전 이면에는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국인들의 한데 뭉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불교대학, 그 중 불교대 학생회장으로서 느끼는 동국대와 불교대 학생과의 괴리감은 씁쓸합니다.

현재 불교대학 자치공간이 위치한 곳은 법학관과 교수회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해관이라 불리던 건물은 로스쿨 준비와 함께 법학관으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만해관 강의실 맞은편에 있던 자치공간은 같은 층 교수회관으로 옮겨졌으며 강의실은 법학관 강의실이 됐습니다. 불교

종립대 불교대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대 학생들은 세입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단과대학들이 저마다 고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대는 고유의 공간은커녕 자치공간을 계속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불교대 선배들의 추억과 젊은 청년불자들의 보금자리였던 불교대학 기숙사 '기원학사'도 역시 떠돌이 신세입니다. 현재 기원학사 건물은 신축으로 인해 학사 학생들이 이주해야 할 형편입니다. 신축, 이전으로 인한 사생 이주는 수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안에서는 곧 동국대 기숙사가 완공되면 '기원학사'라는 불교대학의 전통 있는 기숙사가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불교대 안의 소통과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1학기 학생회장으로서 신경을 크게 쓴 부분 중 하나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직원 식당을 빌리고 음식들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여 '불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행사가 있기 전 미리 불교대학 교수님을 한 분 한 분

찾아 초대장을 전달하고 참석을 약속받았습니다.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재가자 재학생들만 재가자 정원의 반을 넘는 7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두 분만이 행사 전에 오셔서 일정 때문에 불참을 말씀해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술 행사 등으로 바쁘신 것은 이해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에서 잠시나마 뵈 수 없다는 것은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사 외에도 불교대학 다른 행사에서 정교수님들을 뵈는 일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과대의 경우 교수님들이 각 단과대의 밤 행사에 필참하고 일부 경비까지 책임진다는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교대학생으로서 보람도 느낍니다.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이었던 2006년부터는 '동불연꽃제'라는 이름으로 불교대 학생회 주관의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불교문화를 학생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로 9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본교 팔정사에서 2만여 명의 학생과, 사찰음식, 단주·연등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등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전년보다 늘려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방학 중인 7월 말부터 세심하게 준비한 이번 동불연꽃제는 1500여명의 동국대 학생들이 참여해 불교문화를 체험한 성공적인 축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불연꽃제에 참가한 학생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후기에는 진행 기간을 늘리고 프로그램 개수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지원금 300만원이란 재정적 한계가 있었지만 스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모인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지원이 보다 커진다면 본교 학우들에게 불교문화를 새롭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축제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런 과정에서 미래를 봅니다. 불교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보다 힘들다는 말을 선배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종립대학의 자존심, 불교도로서의 마음가짐을 지켜가겠습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좋은 것은 무시하게 되고 아쉬운 것이 여운으로 남는 자리인가 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 현물닷컴 실시간 뉴스 현물뉴스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모달 무디피아 소평을 현물닷컴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51)632-0064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전청 클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여려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대야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족,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土)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